서울 문화 소식

단편영화로 유럽문화를 만나다

성북구,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 개막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서는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를 통해 다채로운 유럽 문화의 현재를 단편영화로 만날 수 있다.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는 우리 사회는 물론 현재 세계의 가장 큰 화두인 '행복'에 대해 질문하는 '당신은 행복한가요?'(A Touch of Happiness)라는 슬로건으로 성북구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재단, ㈜꿈길제작소, ㈜이유엠엔씨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에 공개된 공식 포스터와 트레일러는 색색의 조각들이 모여 만든 둥근 열기구의 형상을 통해 다채로운 삶의 방식이 어우러져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럽의 문화를 상징한다.

제5회 유럽단편영화제는 5월 24일 저녁 7시, 아리랑시네센터 2관에서 개막식과 함께 개막작 '이탈리아인 거리' 상영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12일간의 여정이 진행된다.

또한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연애담'의 류선영 배우는 물론 한양대학교 김새미 박사, 건국대학교 하지현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5개의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유럽의 문화와 단편영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영화제 기간 중에는 성북구 소재 아리랑시네센터와 KU시네마트랩에서 7개 섹션을 통해 29개국 41편의 단편영화가 전회 무료로 상영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성북구와 문화다양성을 소중히 여기는 유럽 단편영화는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유럽문화를 단편영화로 쉽게 만나볼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동불편 최소화

서울시교육청, 특수현장체험 지원 '행복힐링버스' 출발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과 월드비전 서울서부지역본부(본부장 김봉섭)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화곡초등학교에서 '2017 강서양천 행복힐링버스' 출발식을 했다.

행복힐링버스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44인승 버스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강서양천 행복힐링버스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 서울서부지역이 협력해 2015년도부터 운영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유치원 6개 원,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7개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한다.

올해 1학기 참가 신청학교 수는 101개교로 1천264명이 버스 지원을 희망했으며 44인승 대형버스 49대를 8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범위(3천만 원) 내에서 2학기 행복힐링버스 이용에 대해 7월 중에 신청을 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7 강서양천 행복힐링버스 출발식'은 지난 4월 27일 서울화곡초등학교와 서울화일초등학교가 연합해 서울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날에 진행됐다.

출발식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재환 교육장을 비롯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월드비전 서울서부지역 관계자, 서울화곡초등학교와 서울화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강서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7 서울장미축제를 마무리하는 낙화놀이 5월 21일 오후 9시 중랑구 중랑천 중화체육공원에서 2017 서울장미축제를 마무리하는 낙화놀이가 펼쳐졌다. 낙화놀이는 5월 19일부터 3일간 펼쳐진 2017 서울장미축제의 아쉬움을 떨어지는 불꽃으로 표현했다.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드는 든든한 '안전지도'

마포구, 초등학생들 직접 '아동안전지도' 제작

'우리 아이는 잘 등교했을까?' '집에 잘 오고 있을까?', 아이를 가진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이다. 요즘 각종 사건 사고들로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안전지도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 주변을 직접 순찰하고 조사해 안전과 위험 요인을 직접 표시하면서 만드는 지도로 지난해에는 성산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총 197명의 학생들이 안전지도 만들기에 참여했다.

아이들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체험교육과정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6월 안전지도를 완료한 후 10월까지는 하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및 학교별 아동안전지도 리플릿 제가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만들게 되는 안전지도는 관내 4개 초등학교로 소의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 한서초등학교, 용강초등학교로 총 134명이 참여해 만들게 되며 지도제작에는 마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와 학부모,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아동 안전지도는 ▶초등학생 안전의식 및 위험·안전 요소에 대한 인식조사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아동 안전지도 제작 교육 ▶현장조사 ▶지도 제작 ▶사후조사를 거쳐 제작하게 된다.

마무리가 된 후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지도는 가정통신문과 교내 전시회를 통해 전교생과 공유하게 된다.

구는 아동안전지도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 관련 기타 종사자 등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 및 치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감시망이 자연스레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안전지도 만들기와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가정복지과(02-3153-89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아동 안전지도는 단순히 그림과 글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발로 뛰며 스스로 안전과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7회 강동 도시농업·원예박람회 개최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6월 10~11일 이틀간, 강동구 도시농업공원(강동구 둔촌동 565, 일자산 자연공원 내)에서 '제7회 강동 친환경 도시농업·원예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은 관찰텃밭과 생태논, 나도 농부센터, 원두막 등 다양한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올해 도시농업·원예박람회는 도시농업공원에서 개최한다. 공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도시농업을 체험하는 건강한 박람회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텃밭은 건강, 정원은 힐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도시텃밭과 원예를 함께 보여주며, 도시농업과 원예로 환경을 지키는 방법, 더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알리고자 한다.

전시마당에서는 강동 친환경 도시농업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한다. 특히 관심이 많은 공부방, 주방, 사무실 등 집이나 직장 등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 잘 어울리는 작물들로 구성된 실내정원 전시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다양한 작물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체질별 건강에 맞는 약초 상담과 아름다운 원예와 작물의 개념을 함께 가진 작물들도 보여줄 계획이다. 미래식량인 식용곤충과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선순환형 도시농업의 다양한 사업들도 전시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도시농업공원 생태논에서는 전통손모내기 체험이 진행되며, 곤충·논생물·도시양봉 등 생물 체험을 통해 도심생태계의 중요성을 간접경험 해볼 수 있다. 커피찌꺼기 공예품, 폐목화분만들기 등 자원선순환형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공원 한편에서는 모종심기, 허브화분 만들기, 우리가족화분 만들기, 내가 직접 만드는 도시농업&원예도구, 밀짚모자 꾸미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초보농부들을 위한 친환경약제 만드는 방법, 텃밭병충해 관리 상담, 모종 및 씨앗 상담 등 친환경 농사에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개그맨 김미화와 함께하는 도시농업이야기'를 통하여 도시농업의 즐거움, 도시농업과 건강 등 직접 도시농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도 개최된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시농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주도형 박람회로 개최되는 이번행사에는 강동 도시농부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직접 만든 특색 있는 상자텃밭, 텃밭활동 사진, 학생텃밭 전시 등 도시농부들이 직접 참여하고 본인들의 작품을 뽐내는 farmer-show가 도시농업공원 곳곳에서 진행되며, 강동구 도시농업활동가들이 각 특색을 살려 도시농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도시농업포털(www.gangdong.go.kr.cityfarm) 또는 도시농업박람회 페이지(www.facebook.com/gdcityfarm)을 참고하면 된다.